

## 신년사



### 사우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청마(靑馬)의 해를 보내고 을미(乙未)년, 행운을 가져온다는 청양(靑羊)의 해를 맞았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사우회에 청양의 행운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청년이 된 문화방송사우회가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춘 선비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멋있고 웅골찬 젊은이의 모습을 갖추도록 헤어스타일부터 구두까지 꼼꼼히 챙겨 새롭게 디자인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과 규정을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원 간의 소통과 친밀감을 높이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교류의 장(場)인 사우회보를 증면하여 보다 많은 소식을 전하려는 의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이 강화되도록 회원수첩을 인명사전 급으로 확대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 10년전에 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우회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해서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납부한 연회비 내역을 직접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사우회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회원복지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폭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MBC가 지난해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향한 새로운 100년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MBC가 '영광의 선두주자'를 굳힐 수 있도록 방풍림의 역할을 해주실 것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해는 저의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지난 3년간 그랬듯이 금년에도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면서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중용(中庸)의 길을 걷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회원 여러분께서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문화방송 사우회장 김수량

## 신년사



### 기본을 지키고 원칙에 맞게

존경하는 사우회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靑羊의 행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방송 환경은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지상파 광고시장 규모는 1조 9천억 원을 밀돌아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콘텐츠의 단순 유통 수익 확대로만 따라잡기에는 턱차고 반면에 경쟁자들의 추격은 매섭습니다. 대기업의 MPP는 작년에도 지상파의 화제성을 능가하는 콘텐츠를 방영했으며 종합편성 PP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거대 통신은 고가의 통신요금 전략을 위해 지상파 콘텐츠를 헐값으로 통신패키지 상품에 끼워 팔아 콘텐츠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상암 신사옥에서 출발하는 새해에는 제작 방식과 업무 자세를 혁신하고 재 정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중심의 업무와 성과로 말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신에 입각해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캠페인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MBC가 함께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회사는 기본을 지키고 원칙에 맞게 열심히 일한 전문가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 MBC의 저력을 새롭게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안 광 한

## 올 정기총회 2월26일(목) '서대문 리더스나인'

2014년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안)을 확정, 통고시키게될 2015년 회원 정기총회가 2월26일(목) 오전 11:00에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 서대문에 있는 '리더스나인 서대문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6번 출구에서 200M 거리에 있습니다. 서대문 4거리와 중앙일보 중간쯤에 있는 20층짜리 건물 '바비앵3' 지하 1층입니다. 전화는 02-6272-3690 입니다.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사우회 최고의결기관입니다. 회원들의 의결로 사업과 예산, 기타 여러사항들이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강릉-삼척MBC 합병, 'MBC강원영동' 출범

강릉MBC와 삼척MBC가 합병돼 1월1일 'MBC강원영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27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릉MBC와 삼척MBC의 합병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변경 허가를 승인,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 10월부터 추진되어 온 두 방송사의 합병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합병에 즈음하여 'MBC강원영동' 안우정 사장은 "새롭게 출범한 'MBC강원영동'이 강원도 지역 시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MBC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우회 회원 650여명 상암동 MBC신사옥 견학

11월29일(토) 사우회 회원들이 상암동 MBC신사옥을 견학했다. 송년모임을 대신해 실시한 이번 신사옥 견학에는 652명이 참석해 사우회 역대 모임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양양(김재수), 강릉(정무웅)에서 새벽같이 왔는가 하면, 경주(최정식), 봉화(정재호), 상주(최순근), 울산(류달훈), 안동(곽



노우), 대구광역시(이종화)에서도 참석했다. 진주(윤재희)에서도 천리길을 달려왔고 전주(최승)에서, 광주(김포천)에서도 먼길 마다않고 참석했다. 임성기(편제), 형진한(보도), 이원호(관리) 회원은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부인,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MBC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최양목-정상자, 고장석-박민정, 진경현-방영희, 장두형-김순홍 등 부부회원도 나란히 참석해 다른 회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노서을, 이수홍, 서규석, 김민식 고문과, 박근숙 명예회장 등 사우회 원로 회원들도 웅장한 신사옥 건물을 바라보며 옛날을 회상했다.



안광한 MBC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생을 MBC에서 보내신 사우회 회원들이 신사옥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고 “나날이 변해 가는 방송환경과 현실을 고려해 과거의 습관과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New MBC’를 만들 ‘New Mind’를 정착시키겠다”며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량 사우회 회장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MBC의 상암동시대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웅장한 사옥과 초현대식 방송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준 안광한 사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안 사장은 이날 환영식에서 사우회 임국희 감사에게 ‘골든마우스賞’을 시상하고, 임 감사가 아나운서 시절에 보여준 방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치하했다. ‘골든마우스 賞’은 MBC에서 20년 이상 방송을 통해 청취율 향상과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방송인에게 주는 상으로 지금까지 故 이종환, 김기덕(편제), 강석, 최유라 씨 등 8명이 이 상을 수상했다. 김수량 회장은 사우회 발전



에 기여한 이연현(편제) 전 상임부회장과 김용빈(기술) 부회장에게 공로상을 주고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회원들은 11시30분 부터 MBC 진행요원들의 안내로 방송센터 1층 콘텐츠월드와 3층 제작스튜디오를 둘러본 뒤 경영센터로 이동해 10층에 위치한 라디오 주조와 스튜디오, 경영지원국 사무실 그리고 13층의 C라운지들을 견학했다.



이어 브릿지를 통해 미디어센터에서 유턴한 뒤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 내려왔다. 건물이 워낙 크고 넓어 걷는 거리도 그만큼 길었으나 회원들은 피로한 기색없이 건물 구석구석을 열심히 둘러봤다. 견학을 마친 회원들은 전복이 들어간 특제 갈비탕으로 점심을 들었는데 MBC는 구내식당 사상 전례가 없는 술(맥주-소주)까지 제공해 친정을 찾아온 선배 회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정성을 보여 주었다. 이날 신사옥 견학 행사에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MBC에서 건어물 세트와 5만원 상품권, 2015년 다이어리를 선물로 주었으며 사우회에서는 회원수첩을 전달했다. 견학을 끝낸 일부 회원들은 “훌륭한 건물과 시설을 보니 한 6개월쯤 근무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MBC 식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 각 동호회 연말모임 종합

- 미술부 출신 회원들의 모임인 **문미회(회장-최영성)**는 11월22일(토) 3,1빌딩 하이마트 뷔페에서 송년모임을 가졌으며 35명이 참석했다.
- 경리부 출신 회원들은 12월3일(수) **회계인의 밤**을 가졌다.
- 여성 아나운서,PD 출신 모임인 **초록회(회장-임국희)**는 12월 4일 여의도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올해의 ‘자랑스러운 후배’로 MBC 이정민 아나운서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 시설부 출신 회원들의 모임인 **청죽회(회장-이**

- 경재)**도 12월4일(목) 3,1빌딩 하이마트 뷔페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지난해 고회를 맞은 이대교, 윤풍기, 육수길 세 회원을 위해 케익을 준비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 **기술동우회(회장-조정구)**는 12월9일(화) 마포 앰팰리스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비상계획부 출신 회원들 모임인 **문비회(회장-김진홍)**는 12월14일(일) 사당동 참배나무골 사당점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보도국 출신 회원들 모임인 문기회(회장-이재은)**는 12월18일(목) 광화문 씨푸드뷔페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차량부 출신 회원들 모임인 **문우회(회장-이기준)**는 12월28일(일) 여의도 대교반점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차기 임원진을 뽑았다. 새 회장 장기태, 부회장 홍성기, 감사 오수천, 총무는 당분간 전병욱 현 총무가 계속한다.
- **라디오PD 출신 회원들 모임인 인사동클럽(회장-장명호)**은 12월11일(목) 서초동 울돌목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 유일하게 신년모임을 갖고 있는 광고인 출신 회원들 모임인 **문경회(회장-우운근)**는 올 1월13일(화) 세종호텔에서 신년회를 갖고 회원들의 건강과 만사형통을 기원했다.



경·조사

■ 팔순 ■

김용규(전주)3/16

■ 고희 ■

곽영범(편제)2/3 정광수(기술)2/4 차명륜(업무)2/8 이규용(관리)2/9  
김경일(관리)2/13 오명환(편제)2/15 김금수(전주)2/18 황진욱(기술)2/28  
조규보(관리)3/15 박경삼(편제)3/23 이영호(대구)3/25 김상옥(편제)3/30

■ 회갑 ■

이상근(기술)2/1 이춘호(관리)2/3 차영숙(관리)2/8 권병국(편제)2/10  
김미영(미주)2/1 이상로(보도)2/14 박노홍(보도)2/19 이태술(편제)2/20  
장철수(편제)2/20 박영태(기술)2/25 권태석(관리)2/26 최영근(편제)3/1  
박래양(보도)3/5 엄기정(관리)3/9 이충국(미주)3/11 이상욱(관리)3/13  
양윤모(보도)3/14 박우성(편제)3/15 장동철(기술)3/15 이상이(보도)3/16  
하병호(기술)3/16 김선희(ANN)3/18 이재갑(편제)3/22 하경목(기술)3/24  
전용립(관리)3/25

■ 결혼 ■

박춘평(편제)차녀11/29 오범성(관리)장녀12/13 홍진표(관리)장남12/14  
문기영(관리)차녀12/20 이병윤(편제)장남1/3 이기섭(관리)장남1/11  
이채원(관리)장남1/23 장석호(보도)장남2/1

■ 부음 ■

장정기(기술)장모상11/24 이상이(보도)모친상11/28 이소진(관리)모친상12/2  
정상열(관리)장모상12/8 김동환(기술)장모상12/18 강세영(편제)모친상12/25  
허운(관리)모친상12/28 고연도(편제)부친상1/1 이용구(업무)모친상1/4

정기호(미주) : 11월13일(목) 미국 LA에서 별세, 향년 75세. 7월에 위암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MBC홍보국 부국장을 지낸 뒤 1996년 김용현, 조규우 회원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조위식(기술) : 11월18일 제주도에서 별세, 향년 64세. 교인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테마파크 '다시연'에 여행갔다가 친구들 사진을 찍어 주던 도중 전동카트에 받쳐 숨졌다. 1969년 MBC 기술국에 입사했으며, 국장급으로 송출기술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에 정년퇴임했다.

명노현(관리) 12월9일 노환으로 별세, 향년 92세. 법무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1963년에 총무부장으로 MBC에 입사해 5년간 근무하면서 총무이사 를 지냈다. 1922년생으로 사우회 회원 중 두번째 고령 회원이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姜昊辰(편제) 010-8997-0942 031-906-8664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101-402 (풍동,쌍용A)  
朴勝圭(보도) 010-5385-3442 02-720-1005  
종로구 사직로8길 20 파크팰리스 101-1303 (내수동)  
李敏愛(관리) 02-2643-7658

양천구 목동서로 280, 806-1105 (신정동,목동신시가지A)  
鄭相烈(관리) 010-9285-0871 032-287-8705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708-2204 (삼산타운7단지)

■ 평생회비 ■

11월~12월 : 강호진(편제)11/13 박승규(보도)12/4 이소진(관리)12/8  
이민애(관리)12/22 유희근(보도)12/26

■ 연회비 ■

11월 : 강의원(14) 구종회(14~15) 권상규(15) 권수훈(14) 김우중(14)  
김휘성(14~15) 나종인(17~24,80세완납) 노종규(12)  
문성수(15~16) 박종완(14) 반응섭(08) 방영희(12) 송인익(14)  
오명균(14~18) 오순심(14) 오청엽(15) 우윤근(07~13,80세완납)  
유혜자(14~16) 윤영란(10~14) 이명자(14) 이보근(17) 이승문(15)  
이재원(14) 인우삼(16) 장명호(14~15) 장석호(14~16) 장우식(14)  
장인순(20~24) 장정기(13~14) 정상열(14) 조병영(15) 조은국(13)  
진경현(12) 최정일(14) 최창일(15~16,80세완납) 하민웅(14)  
하영석(14~21,80세완납) 한승영(14~15) 황학구(14)

12월 : 김동오(17~21,80세완납) 김진희(15,80세완납) 박선영(04~08)  
박오순(15~17,80세완납) 박한성(14) 서성하(12~15) 유무정(14)  
이유철(15~17) 임재룡(15~19,80세완납) 임정봉(13~17)  
정병준(15) 조규보(13~15) 최대흥(15~16) 최영호(14)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고태원 마포구 마포대로 195, 304-1301 (아현동,마포래미안푸르지오)  
김영면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75, 201호 (한남동,다이아몬드프라자)  
변영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108번길 67-5 화이트스톤빌 301호  
이걸범 광명시 하안로 320, 1014-807 (하안동,고층주공A)  
이대섭 010-5265-4755 최선규 010-6325-1961  
한숙동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22번길 36, 6009-503 (이의동)  
보도 : 구본학 강동구 천호대로 1065 강동상떼빌 11층 8호 (천호동)  
구본홍 010-8613-7447  
장창현 강서구 공항대로75길 42, 102-601 (염창동,대림A)  
정진철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80, D-1207 (정자동,미켈란쉐르빌)  
기술 : 권호식 구로구 개봉로20길 6, 122-1002 (개봉동,현대1단지A)  
金鍾賢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 501-105 (반포동,삼호가든A)  
노희복 010-9005-7118 031-797-2858  
업무 : 조강래 010-2440-1765  
관리 : 경정수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3 임곡주공A 110-802  
권재욱 봉화군 봉화읍 안더구길 98-48  
김필환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3, 1011-1002 (행신동)  
김하일 010-6271-1796  
서성하 성북구 동소문로 229 동궁빌딩 1층 동궁화원 (길음동)  
안호선 010-8861-1887  
안호진 010-3699-6899 성남시 중원구 금강1동 황송마을 103-305  
윤준구 용인시 기흥구 평촌2로 5, 201호 (동백동)  
은정기 010-2883-9684  
한순애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30, 103-201 (마포동,마포쌍용황금A)

TV3에  
새로움이 플러스 된다



Let's plus!

MBC+ MEDIA  
www.mbcplus.com

MBC every

MBC SPORTS+

MBC drama

MBC MUSIC

MBC QueenN

## 회 원 동 정



## 김포천(편제)

이미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으로 그 명성과 역량을 세상에 알린 바 있는 김 회원께서 작년 10월, 제3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추진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광주광역시에서 2012년에 출범한 세계아리랑축전에는 '창작아리랑 경연대회' '아리랑댄싱' 등 다양한 아리랑 작품들이 선보였다.



## 이우철(기술)

포항MBC사장. 12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양대 출신 언론인 모임 '한양언론인회'가 수여하는 "제14회 한양언론인상"을 수상했다.



## 박선영(보도)

2012년에 국군포로와 탈북자를 돕는 단체 '물망초'를 설립해 이 사장을 맡고 있는데 12월 12일 '물망초 인권연구소'가 주관한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물망초 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물망초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 한윤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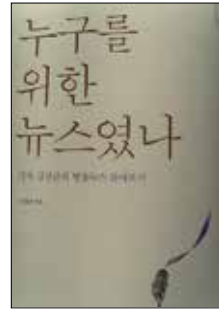
MBC플러스미디어사장. 12월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립대인의 밤' 행사에서 서울시립대

를 빛낸 언론인으로 선정돼 '2014 자랑스런 시립대인상'을 수상했다.



## 김상균(보도)

「누구를 위한 뉴스였나. 기자 김상균의 방송뉴스 돌아보기」를 출간했다. MBC 기자로 입사해 해직, 복직을 경험하고 워싱턴특파원, 보도국장, 지역사 사장을 거치며 겪은 다양한 사연들과 비화, 역사적 사건들을 분야별로 소상하게 회고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특히 방송뉴스가 지향해야 할 바를 꼼꼼하고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후배 방송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 구영희(보도)

에세이집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를 출간했다. 퇴직 후 고향인 구례 지리산 근처에 머물면서 자신의 내면이 새롭게 눈 뜨고 바뀌어 가는 과정을 담백하게 기술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관해 성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서점 출시 일주일 만에 '화제의 신



간 베스트'에 선정되고 교보문고 자기계발서적 중 1위에 오르는가 하면 베스트셀러에 선정되기도 했다.



## 오준상(기술)

2004년부터 필리핀을 오가면서, 현지(엔젤레스 지역)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여 아이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펼치고, 국내에서는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안광한(편제)

MBC사장·한국방송협회장. 12월 18일 한국방송협회 임원진과 함께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고 위문금과 33대의 디지털 HDTV를 전달했다.



## 양영철(보도)

방송기자클럽회장. 12월12일(금)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3회 '올해의 방송기지상' 시상식을 가졌고 이어 12월16일(화) 정의화 국회의장을 세종문화회관으로 초청해 TV 토론회를 가졌다.



## 정성만(보도)

한국방송협회 추천으로 뉴스통신진흥회 4기 이사로 선임되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로서 연합뉴스의 관리, 감독권 및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다.



## 신사옥 방문기

## 뭘 보고 뭘 듣고 왔더라?

## 이 종 민(관리)



아직도 그 때의 기쁨과 감동이 남아 있다.

사글세(朔月費) 살다가 전세(傳賃) 살다가 빚 좀 내어 남이 살던 집 하나를 샀었다.

그리고는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산 집 동네에다 뽕죽한 연필로 점을 꼭 찍고는

"야! 나 집 샀다. 이 지구 위에 내 땅과 집이 있다. 이제 나한테 까불지 마라!" 고 크게 외친 적이 있었다. MBC가 仁寺洞에서 貞洞으로, 貞洞에서 汝矣島로 이사할 때마다 좋아했었다. MBC후배들이 여의도에서 멋지고 으리으리한 上岩洞 사옥으로 근무지를 옮기며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선배 사우들도 흐뭇했으니까.

지난 11월 29일, MBC 상암 신사옥 방문 행사가 있었지. 지하철역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줘서 신사옥 로비로 들어서니 '飲水思源 掘井之人' (물을 마실 때는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은 中國 梁나라 장군 庾信의 '徵調曲'에 나오는 글로 알고 있는데 이 글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장학생들의 '靑五誌' 창간을 축하하며 휘호(揮毫)로 썼고, 당시 5.16 장학회 이사장실 벽에 걸려 있는 걸 MBC 어느 사장이 그 글을 표구해서 정동사옥

복도에 걸어 놔 MBC 직원들과 가까워졌었다. 좋은 뜻의 글이긴 하지만 상암동 MBC 후배들에겐 이런 글이 더 좋을 듯싶다.

"근심지목(根深之木) 풍역불울(風亦不) 원원지수(源遠之水) 한역불갈(旱亦不竭)"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한다.〉

시설 견학은, 공개홀에서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서 실물을 보게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질 않던데 왜 그랬을까? 머리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다. 보고 들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겠지. 엄청난 시설 규모만 눈에서 얼씬거린다. 聽無聲, 視無形 하라고 그랬나? 반겨주는 건 좋은데 어떤 곳에는 '환영 Home coming' 였고 또 어떤 곳에는 'Home Comming'이던데.....? 그저 빙 둘러보고 점심을 기다리는 동안 마시라고 내놓은 맥주, 소주와 안주는? 잔칫집 음식 만드는데다 음식을 주문했었어야지. 종로 떡집 떡을 먹으며 수정과를 마시고 싶었었다. 점심은 인사동 천향각 짜장면, 정동에서 자주 갔었던 영천 대성집 도가니탕, 여의도 스테이크 같은 게 나오길 바랬었다. 추억이 먹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웠었다. 후배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었다. 그래주질 않았지만 갈비탕 먹여주고 선물과 상품권 줬으니 고맙다고 하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란

말이 떠올랐다.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2막 7장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말했다. 또 '반지의 제왕'에는 "금이라 해서 다 반짝이는 것은 아니다.(All That Is Gold does not glitter-J.R.R Tolkien)라고도 했다.

MBC는 이제 신사옥만큼 새로워져야 한다. 거창한 MBC 신사옥에 발목 잡혀 방송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기우(杞憂)가 있었다. 걸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안되지. MBC가 추구했던 "이제는 프로그램이다"는 어떻게 되었지? Hardware (신사옥)가 완비 되었으니 이제는 Software (프로그램)에 매달려야 한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은 그 것 뿐이다. 집에서 시청할 수 있는 TV 채널이 엄청 많다. 몇 백 개 된다. 개(犬)가 보는 TV도 있다. Steven Paul "Steve" Jobs가 스탠포드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문 중 'Stay hungry, Stay foolish.' (갈망하고 정진하라)이 글이 1층 벽면에 적혀있는 걸 봤고 후배들이 오가며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이번 상암동 사우들의 Homecoming '상암 MBC 신사옥 방문행사'에 다녀 와서 사우회원들과 상암동에서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龍惠園의 詩 -네가 좋다 참말로 좋다-를 남긴다.

『나는 네가 좋다. 참말로 좋다.

네가 좋아서 참말로 좋아서

사랑만 하고 싶다』





# 변호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김성규(관리)



사우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2사번 김성규입니다. 회사의 도움으로 제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여 직업을 바꾼 지도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사우회보에 글을 하나 쓰라는 주문을 받고

생각하다가 평소 착하게 살아오신 사우회원들이야 법률문제에 신경 쓸 일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주변사람들에게 조언할 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제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가전제품도 사용법을 알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변호사도 선임요령을 잘 안다면 비용대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를하여 '변호사 사용법'이라고나 할까요?

## 1) 변호사는 사는 것인가?

"변호사를 산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임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나면 팔려가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등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이며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는 대가로 의뢰인이 위임한 소송업무 등 법률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승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일 것입니다. 사실상 변호사 보수에 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의 난이도나 소송물의 가액(통상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 등에 따라 의뢰인과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소송의 성과와 무관하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소송에 착수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에 가까운 소송결과를 이끌어 냈을 때 지불하는 사례금입니다. 성공보수를 약정할 경우에는 '전부승소', '일부승소'(승소 금액 기준 또는 특정 청구부분의 인용여부 등으로 결정)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승소'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경우에 '일부승소'로 인정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성공보수는 꼭 약정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소송을 위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소를 전제로 한 것이니 별도로 성공보수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소금 먹은 사람이 물컨다'는 말도 있듯이 성공보수가 크게 약정된 사건에 아무래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人之常情이라 할 것입니다. 간혹 성공보수는 승소가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상 심급대리라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심급별료, 즉 1심, 2심, 3심별로 각 심급에서만 소송대리의 효과가 미칩니다. 따라서 성공보수는 심급별로 약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 4)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될 소송을 상대방으로 인하여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전부 승소하더라도 자신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반환받게 됩니다. 또한 반환받는 시기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아니라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상소한 사건이라도 확정되면 1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반환됩니다)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파기 환송된 사건이 아니면, 즉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면 더 이상 불복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 5)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가?

알고 지내는 믿을만한 변호사가 없다면 소송이 제기된 관할법원 부근의 변호사 사무실 몇 곳을 찾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신다고 권한 이유는, 의뢰인이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르더라도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나름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법률공부를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과 상담한 변호사들에 대한 비교 평가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신을 이기게 해 준다는 사람에게 끌리겠지만 소송은 '상대방이 있는 하나의 게임'이기에 그렇게 쉽게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임료만 노리고 승소를 장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그 진행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주장과 증거가 교환되는 가운데 승소라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살아 꿈틀거리는 과정입니다.

## 6)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나?

최근 들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문변호사를 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교통사고, 의료사고, 언론사건, 가사사건, 특허사건, 재건축사건, 부동산사건 등에 전문적으로 특화되었다 할 만한 변호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로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어서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나, 그 변호사의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7) 소위 전관에게 맡기면 유리한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바로 퇴직한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송을 하는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재판이나 수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

타날 수 있는 결과에 근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거기까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관(前官)이라는 프리미엄을 믿고 턱 없이 많은 보수를 약속하고 사건을 위임하다 보면 그 전관이 수행하는 많은 사건 속에 내 사건이 묻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실상은 어찌되었든 제도적으로는 법원에서 전관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8) 사건위임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나?

때때로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원이 변호사를 대신하여 의뢰인과 선임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삼가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책임질 수 없는 내용으로 약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무장이 의뢰인과 엉뚱한 약정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계약은 반드시 변호사와 하고, 상담 또한 1차적으로는 사무장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위임계약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각 법무법인과 개별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위임약정서를 작성할 때 그 약정서가 이와 같은 표준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9)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다툼이 있는 초기 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본인이 소송을 하다가 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 때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필요한 주장을 안 하거나 전혀 엉뚱한 주장 내지는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 소송 진행 중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로서도 기왕의 불리한 주장과 증거를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10)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나?

답은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방도 아는데 판사나 검사만 모른다"고 푸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실은 다 몰라도 좋으니 판사나 검사만 알면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만의 판단으로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놓칠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사건 등 지능적 범죄에 속하거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자문이라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11) 당부의 말씀

MBC에 재직했던 분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송사에 휘말린 경우 꼭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평소 중요한 계약체결에 앞서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우 여러분 모두 법정에서 뽀는 일 없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우회 고문 변호사)



## 元老를 만나다

사우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元老를 만나다>를 시작합니다.  
편의상 분야별로 나누어 元老께서 MBC에 얹힌 인연과 함께  
기억하고 있는 'MBC 歷史'의 한 토막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손님은 MBC 개국의 산파역을 하였던 李秀洪 사우회 고문입니다. '문화'방송에서 일하고, '문화'원협회 회장을 지냈고, 옥관, 은관 '문화' 훈장을 받고, 현재는 87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재)한국'문화'협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등 평생을 '문화'와 함께 하신 이 고문님을 마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 -MBC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에 전쟁이 나서 통역장교로 입대해가지고 10년 가까이 복무했어요. 헌병과에서 근무하다가 미육군헌병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룸메이트가 '스타디스'라는 예비역 대위였지. 이 친구가 당시 광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를 통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광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됐어요. 덕분에 1960년 대위로 제대를 한 뒤 한국일보 윤동현 부사장의 권유로 신문사의 광고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새 광고'라는 월간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광고시장 조사도 하고 그랬지요.

### -MBC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어느 날, MBC 김영출 상무라는 분이 찾아와서 방송광고 시장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묻다가 김지태 사장을 만나보시지 않겠냐고 권유해서 을지로 2가 조선전직 사무실에 가서 김 사장을 처음 만났어요. 김 사장이 내게 손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뒤틀리고 손이 몹시 거칠더라구. 젊었을 적에 공장 직공으로 일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많이 감동했어요. 당시 김 사장은 부산에서 HLKU를 한 2년 정도 경영하고 있었지만 방송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날더러 신설 방송국의 업무 부장으로 오지 않겠냐고 하는 거야. 당시 조직은 방송부와 업무부 둘 밖에 없었고 업무부 아래 4과가 있었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해서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에게 그렇더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 양반도 언젠가는 TV방송국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 돼!" 하면서 흔쾌히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김 사장에게 '이사 겸 업무부장'이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럼 3개월간 수습을 하되 월 1,500만원(圓)의 광고판 매액을 달성하면 석 달 후에 이사(理事)를 시켜주겠다'고 합디다. 당시 일본 방송의 경우에 견줘서 내가 계산해볼 때 월 4천만원(圓) 판매는 무난하게 달성하겠더라고. 그래서 1961년 9

월 7일자로 MBC와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근데 와서 일을 해보니, 김 사장이 얼마나 돈을 안 쓰는지, 명색이 방송국인데 차(車)도 붓고 비슷한 거 한 대 뿐이고 동일가구 건물에 세를 얻어 4.5층을 쓰다가 3층 한 층을 더 늘려야 하는데 건물주(김동식씨)가 "집세도 제대로 안내니까 못 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 할 수없이 내 개인 도장을 찍어주고 3층을 계약했다고.

### -그렇게 MBC에 오셔서 개국 준비를 하셨군요?

업무부장으로 오면서 한국일보의 우윤근 영업1과장과 이해천 2과장을 데려와서 업무1,2과장을 시켰지. 사업과장은 박재영이고 CM과장은 차범석, 이렇게 팀을 짰어요. 그렇게 해서 12월 2일에 개국을 했는데 다음 해(1962년) 2월에 김지태 사장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됐어요. 출소한 후 6월쯤에 김 사장이 청운동 자택으로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세 가지 얘기를 합디다. 하나는, "내가 사업가로서 시장 판단을 당신보다 잘못했다. 애당초 자기 예상보다 약 250% 수익을 더 올리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며 사업가로서 방송사업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더라고. 두 번째는, "어제 청와대에 가서 신문과 방송을 다 공익기관에 기부하기로 도장을 찍고 왔는데 가슴이 아프지만 속은 시원해졌다" 세 번째는 "당신에게 약속한 이사 승진 건은 기부 조건에 들어가 있으니 곧 해줄거다" 그러시더라고.

### -그걸로 김지태 사장과 인연은 끝났군요.

그 후 고원증씨가 2대 사장으로 왔어요. 이분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최고회의 시절에 법무부장관을 했던 분인데 취임 첫 마디가 "상부의 명에 의해 MBC의 관리와 5.16장학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며 군기가 딱 잡힌 투로 말하더라고. 근데 꺾어보니 사람이 아주 깨끗한 분이야. 일하는 것도 깔끔하고. 그 분이 오면서 명노현씨를 총무부장으로, 육군 통신차감을 하던 전용인씨를 기술부장으로 데려왔어요. 배준호 방송부장과 나는 이사로 승진했고. 특히 기술부장은 큰일을 했어요. 1963년 10월에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때 MBC가 개표방송을 아주 잘 했어요. 왜 잘했는가 하면, 기술부장이 통신차감 출신이니까 군대에서 쓰는 EE-8 군용 자석식 전화기를 2~300대 빌려서 각 개표소에 배치하고 실시간으로 집계상황을 보도하니까 중앙선관위 발표를 보고 보도하는 KBS와는 게임이 안되는 거야. 히트를 쳤지.

### -TBC가 개국하면서 대 이동이 있었죠?

4월엔가 개국했는데 정환옥 전무, 김영출 상무, 방송부장, 아나운서실장, 편성과장 등 10여명이 동시에 확 빠져나갔어요. 이사라고는 상무인 나 하나 남았더라고. 할 수없이 사장과 둘이서 인력을 보충하는데 맨 처음 모신 분이 당시 공보부 방송관리과장 서규석씨와 박종민씨였어요. 아나운서도 강영숙, 최세훈씨 등이 섭외됐고. 근데, 임택근씨를 섭외하는데 자기가 방송부장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거야. 이미 서규석씨를 방송부장으로 내정했는데. 할 수 없이 서규석씨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양

보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렇게 팀을 꾸려서 방송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에 보다 분위기와 성과가 더 좋았어요.

### -3대 황용주 사장은 어떤 분이셨나요?

박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인 황용주 사장은 부산일보 주필 당시에 김지태 사장과 박정희 군수기지사령관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도 5.16장학회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사장으로 왔을 때 '올 사람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분이 와세 다대학에 다니다가 학병에 나갔는데 당시 학병 출신으로 구성된 '1.20동지회' 사람들과 대구사범 출신들이 많이 찾아왔지. 장경순 국회부의장, 왕학수 교수, 구태회 럭키회장, 민충식 한전 사장, 서정귀씨, 소설가 이병주씨 등이 자주 왔어요. 그런데 사장실과 상무실 사이에 얇은 판자 칸막이 밖에 없으니까 사장실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 서정귀씨(나중에 호남정유 사장)와는 바둑을 잘 뒀는데 황 사장은 20분이고 30분이고 장고(長考)하는 스타일이거든. 기다리다 못한 서정귀씨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나 집에 왔다'고 전화를 한 일도 있었지. 황 사장은 꿈이 상당히 큰 분이셨어요. 예능 쪽은 그만하면 됐으니 보도과에 불과한 언론기능을 확대하여 MBC를 언론기관으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방송상무로 경향신문의 J씨를 영입하고 한국일보 등 일간지의 부장급들을 스카웃한다는 계획을 세워 섭외까지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했었지.

### -선견지명이 있으셨군요. 계획대로 잘 됐었나요?

아니지. 그 발표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 분이 '세대紙 필화사건'으로 반공법 위반했다고 구속된 거야. 그래서 그 계획은 아쉽게도 없던 일로 돼버렸어요.

### -다음 사장은 조증출씨였죠?

12월에 조증출씨가 사장으로 왔는데 그 분은 의사출신답게 핀셋으로 일하는 것처럼 꼬장꼬장했어요. 예컨대 회사가 어려우니 자기는 보너스를 안 받겠다고 고집하는 거라. 당시 회사는 정부로부터 두 가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는 MBC에만 지방국을 네 군데나 허용한 점이고 또 하나는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도 말야. 그 바람에 내가 사장과 사원들 사이에서 입장이 좀 곤란했었어요.

### -정동 신사옥 건설 준비도 직접 하셨죠?

'신사옥 건립 및 TV개설 준비위원장'이라는 두 가지 중책을 한꺼번에 맡아서 밤낮없이 뛰었는데 나 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무척 고생했어요. 신사옥을 건설하고 기계를 들여오려는데 돈이 있어야지. 마침 장기영씨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계신 덕분에 도움을 받아 차관으로 기계를 들여올 수 있었고 또 관광호텔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차관을 들여와 스튜디오를 지었지. 기계는 화란 필립스사의 계열사인 영국의 파이(PYE)사의 기계를 들여왔어요. 신사옥 설계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 김수근씨에







게 맡겼는데 설계비를 거의 안 받았어요. 건설을 맡은 현대건설도 실비로 해줬고. TV개국을 위해서 편성국장에 정순일씨, 기술국장에 김교성씨를 내정해서 준비를 시키고 1969년 12월 2일 개국을 목표로 정예요원 20명을 선발해서 영국 방송사에 보내 3개월간 연수를 시키는 계획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던 문제가 밖에서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1969년은 3선개헌과 유신헌법이 선포된 해 아닙니까? 권력의 일각에서 TV방송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갑자기 8월 8일에 개국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거야. 영국에서 기계가 도착하는 일정도 12월이고 준비인원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말이지. 라디오 PD들 중에 TV가 개국하면 그 쪽으로 옮기려는 직원들이 상당 수 있었는데 교육이 안되었으니

쓸 수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미안했지만 하는 수없이 TBC에서 이기하, 표재순, 임성기 등 TV PD 11명을 스카웃했어요. 탤런트 섭외도 최불암, 김혜자 정도로 저조해서 할 수 없이 윤정희, 김진규, 신영균 등 영화배우들을 많이 썼어요. 우여곡절 끝에 8월 8일에 개국은 했지만 아주~ 부족한 게 많았지요.

#### -퇴직은 언제 하셨나요?

TV개국 다음 해인 1970년은 내가 이사가 된 지 8년째 되는데, 사전에 조 사장으로부터 승진에 관한 언질도 있었고 주위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주종 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죠. 돌이켜 보면 MBC에서의 9년은 없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심정으로 일했었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MBC에서 겪었던 체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돌이켜 보면, 네 분 사장들은 성격과 방법은 달랐지만 MBC 초창기에 나름대로 큰 공을 세운 분들입니다. 물론 사장들 말고도 큰 공을 세운 분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요.

#### -여담인데, 말(馬) 때문에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으셨죠?



1993년에 개인 마주(馬主)제도가 생겨서 제1호가 됐었어요. 지금 열 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중 '백광'이라는 말(사진)이 대통령배대회에서 2등을 해서 상금을 4천만원 가까이 탔거든. 그 돈을 '백광'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증했더니 그 이후로 다른 마주들도 말 이름으로 기부하는 일이 많아져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지. 말과 정이 흠뻑 들었어요. 허허허.

〈후기〉을 해 결혼 55주년을 맞는 이 고문께서는, 연세대 명예교수이며 예술원 회원이신 성악가 황영금 여사와의 사이에 1남3녀를 두셨으며 따님 두분도 음악을 공부했습니다.(국립 오페라단장 이소영씨는 장녀) 지금까지 사우회 행사라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노익장이시지만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담:정리: 편집장



가르치는 즐거움

## 인생 2막이 주는 즐거움

윤영관(편집)



MBC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던 1991년. 인간시대 연출을 하던 나는 우연한 기회에 아카데미 구성작가 반을 맡아 강의를 하게 되었다. 1기생부터 강의를 했던 인연이 질기게도 이어졌다. 고대 신방과, 한성대 디지털 콘텐츠학부, 서울예대 극작과 학생들과 만났고 MBC를 퇴사한 후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로 조선대 신방과에서 3년을 강의하게 되었다. 20년 넘게 해온 가르치는 일은 마침내 지난 해 선문대 교수 생활에 이르게 되었으니 인연치고는 제법 질긴 인연인 셈이다.

선문대에서의 내 강의는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 제작실습'이다. '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미디어중 텔레비전의 변화와 트렌드를 찾아내고 콘텐츠제작의 인프라를 알려주는 과목이다. 스토리텔링이 마케팅 분야에서 시작되어 문화예술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자리 잡은 세태를 반영한 수업 중 하나인 것이다. 캐릭터(character)와 위기(crisis), 메시지(message)와 구성(plot)으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이 TV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분석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해보는 작업이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TV제작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과목이라면 '다큐멘터리 제작실습'은 실제적 실습과목이다. 한 학기동안 15분 남짓의 작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다. 3분 남짓한 개인별 제작물 제출이 중간고사 전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단체 제작에 들어간다. 기획아이템을 정하고 Full HD 카메라인 소니 NX 5를 이용해 촬영을 하고 애플 맥의 파이널 컷 프로를 통해 편집을 한다. 학

생들은 연출, 작가, 기술 카메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각 팀별 팀장의 책임아래 기획, 구성, 촬영, 편집, 자막작업, 음악선곡, 내레이션 쓰기와 더빙, 완제품제작을 경험한다. 영상세대인 요즘 학생들은 영상을 만드는 재능이 뛰어나 곧잘 만들어 낸다. 물론 다큐멘터리보다는 드라마나 예능 쪽에 흥미를 보이고 재미의 요소에 천착한다. 어쩔 수 없는 추세이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는 모두들 피해간다.

스마트 폰 시대는 미디어 생태계를 무섭게 변화시키고 있다. TV 역시 올드미디어가 된 지 이미 오래고 TV를 비롯한 기존 미디어의 미래는 생존 자체에 대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디어 강의는 시류를 반영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올드(?)한 수업이 될 수 있다. 나의 강의철학은, "강의란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새로움을 추구한다. 저널리즘 연구의 원로인 미주리대학 장원호 교수로부터 그의 친구였던 고등학교 미식축구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미식축구 감독이 천방지축 제멋대로인 고등학생 선수들을 컨트롤하는 최상의 방법은 모티베이션(motivation)이었다고 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열의를 갖고 임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동기부여'다. 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지 비전제시를 통해 동기부여가 분명했을 때 학생들은 앞다투어 '신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법이다.

또 하나는 새로운 그 무엇(something new)이다. 강의는 늘상 새로워야 한다. '별에서 온 그대'가 성공하면 그 성공을 분석해 강의에 녹여야 한다. 스타(김수현과 전지현), 장르파괴(SF와 사극과 코미디와 멜로의 혼합), 연출(장태유PD의 연출기법), 카메라(타임 슬

라이스 기법 등), 작가(박지은 작가의 다양성; 박지은 작가는 라디오 교양 예능 시트콤을 경험한 컨버전스 작가다)등 다양한 성공요소를 영상자료와 함께 강의하게 되면 지금 벌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까지 가미되어 집중도가 높아진다.

요즘의 관심사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라면 그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특히 가족애)뿐 아니라 놀란 감독의 성장과정, 개인적 특별함(놀란은 인터넷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 폰도 쓰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감독이라는 등) 연출의 특징 등을 강의 속에 담아야 한다.

이십년 넘게 강의를 해오다 보니 내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져 반복된 강의의 틀에 갇히게 될 때가 있다. 매너리즘은 무엇보다 강의 자체를 처지게 한다. 또한 강의하는 사람 자신이 신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난 지겨움은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 그래서 강의준비는 지금 벌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찾아내야 하고 반드시 쌍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후반기 제작실습과목은 완제품제작을 남겨놓고 있다. 프로그램 연출을 하면서 리니어 편집만을 해오던 나는 몇 년 전에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한 넌리니어 편집(비선형 편집)을 손에 익혔다. 편집의 감과 원칙이야 다르지 않지만 뉴 테크놀로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내놓고 보니 가르침의 길은 새로움과의 싸움이였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의 세계를 후학들에게 물려준다는 것과 그러면서 내 자신도 새롭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물려주고 새롭게 배워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 2막이 주는 커다란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 대추나무 열매 하나를 보며

송원근(관리)



"오래 살다보면 '이런 일' (something like this)이 생길 줄 내가 알았지!"

'버나드 쇼'의 그 유명한 묘비명이다. '이런 일'에는 정년퇴직도 해당되리라. 은퇴를 준비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막상 닥치면 죽음만큼이나 당혹스러우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런 일'에 대비한답시고 10여 년 전 부터 고향에 땅을 넓게 마련하고 나무를 심었었다.

"무슨 나무든 10년을 키워보세요. 1500원 짜리 묘목 하나가 10만원은 너끈히 됩니다. 하루에 나무 한 그루씩만 팔아도 노후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360그루의 나무를 10년간만 심어보시라니까요." 라는 묘목상인의 말에 솔깃해서였지만, 평소 과수원은 낭만이 있는 곳으로 "동구밖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핀 5월, 그런 햇빛 찡찡한 젊은 날의 노랫말이 마음에 새겨있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묘목상의 추천을 받아 꽃이 좋은 벚나무와 꽃도 좋고 열매도 좋은 매실나무를 심었었다. 해충에 강하고 손이 별로 가지 않는다는 잇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 나무의 꽃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청포도나 사과를 시(詩)에 나올 만큼 멋있긴

하나 손이 많이 간다 하니 게으른 나로서는 엄두가 나질 않았다.

그런데 요즘 벚나무와 매실나무 형편이 말이 아니다. 벚나무는 가로수로 쓰여져야 하는데 건축경기가 위낙 없다보니 나무만 하염없이 자랄 뿐이다. 매실나무는 더욱 보기에 딱하다. 지난 봄 매실은 한 포대에 10,000원을 조금 넘었다. 한나절 따야 2포대인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공급이 수요를 엄청 초과했기 때문이다.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매실에 마음이 아렸다.

그렇다고 꽃을 보기위해 좋은 밭을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서 애써 심은 나무를 캐고 옮기는 수고를 한 후, 올 봄에는 왕대추 묘목 1000여주를 또 심었다. 보은(報恩)에서 생으로 먹은 달걀만한 대추열매의 맛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한 되에 2~30,000원 하는 가격도 좋아보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내 고향 논산시(論山市) 연산(漣山)은 옛날부터 대추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대추나무를 심어보니 참으로 하는 짓이 요상하다. 5월 벚꽃이 인기를 끌 때 그때야 겨우 움을 틔운다. 그 전에는 미동도 하지 않아 지난 겨울 추위에 얼어 죽었나 걱정될 정도였다. 대추나무는 한낮은 물론 밤에도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내보인다. 말하자면 리스크가 전혀 없어야 행동하는 것이

다.

자잘한 꽃은 꽃같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름 가까이에 피는 꽃에 그 누구도 눈여겨 봐주지 않는다. 나무 자체의 볼품도 없다. 그렇지만 대추나무는 꽃이 피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 꽃을 세면 열매를 셀 수 있을 정도다. 결혼식 폐백 때 시어머니가 많은 자식을 기원하며 새 며느리에게 대추를 던져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젊은 날 화려했던 아카시아며 벚꽃이며 매실은 가을에 열매가 없다. 그러나 비록 젊은 날은 있는 등 없는 등 하지만 가을에 화려한 열매를 실하게 맺는 대추는 노년의 나무다.

대추는 매실과는 달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먹는다. 조율시리(棗栗柿梨). 제사상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 놓인다.

누구나 젊은 날에는 '나이 들어 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멋있으면 얼마나 멋이 있겠느냐'고 노년의 삶과 이미지를 폄하하기 쉽지만 생(生)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옛그제 거름을 주다가 어느 대추 묘목에 실한 열매 하나가 매달린 것을 보았다. 30~40cm 크기의 나무에 열매가 딱 하나다. 그 열매 하나에 노후의 희망을 걸어본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벚나무 숲을 빠져나오면서 내년 봄에는 벚나무 대신 대추나무를 연이어 심을 계획을 세워본다.

## 고객과의 신뢰, 믿을 수 있는 기업 동화AV(주)

### 다큐멘터리&보도용 조명이 필요 없는 카메라

HDL-4500은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매우 높은 Sensitivity를 구현하기 위해 3CMOS를 탑재했다.

Ikegami사가 추천하는 사용 용도

1. 보도용 카메라
2. 다큐멘터리 촬영
3. 조명을 쓰기 힘든 예능 프로그램
4. 파노라마용 카메라

\* KBS 납품



HDL-4500



HDL-5500

With Viewfinder, Handle & Shoulder Pad (Option)



### 2014 SOCHI Olympic 30대 사용

#### 슈퍼 슬로우 초고속 카메라 Key Features

- + More than 10 times framing rate
- + High Capacity 96GB Memory
- + Recording When in Playback
- + Playback Without Server
- + Continuous Live Video Output
- + Flicker Correction Function
- + Flexible Recording Speed
  - 24 to 500 fps 1fps step (Full Mode)
  - 24 to 1000 fps 1fps step (Half Mode)



동화A/V주식회사  
DONG-HWA A/V CO., LTD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B동 1801~2호  
Tel:02)783-4055-6, Fax:784-9941 e-mail:sales@dhav.co.kr



Ikegami

